

## 중등 국어교사 임용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      ① 논문은 제6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8.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과 조언을 통해 논의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신 가은아 선생님과 김승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중등 교사 임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정적인 교사 수급 정책의 필요성
- III.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V. 결론

## I. 서론

이 글의 목표는 현행 ‘중등 교사 임용 체제’의 공정성, 적절성, 합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준 높은 국어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등 국어 임용시험<sup>1)</sup> 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중등 국어교사 임용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 글은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및 임용시험 체제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① 국어과 교원자격증 취득자 수가 실질적인 교사 수요를 넘어서는 문제
- ②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평가 내용 간 정합성 부족 문제
- ③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 체제(출제, 채점 등)의 불완전성 문제

---

1)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공식 명칭은 ‘공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다. 이후 ‘중등 (국어) 임용시험’이라 하고, 모든 학교급과 교과의 시험을 통칭하는 경우 ‘임용시험’이라 한다.

위의 세 가지 문제 중 ①과 ②는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내적 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교사 양성 및 수급 정책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및 임용에 관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중 일부는 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 향상을 포함하여 단순히 교사 임용 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는 결국 국가 수준에서 거시적 관점의 장기적인 개혁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에 비하면 ③은 현행 임용시험 체제 운영상의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서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현행 임용시험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스템 내부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문항의 내용과 형식의 타당성 제고, 출제·검토 및 채점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그 대략적인 방향일 것이다.

국어 교사 양성 및 임용시험 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교사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정책이나 임용시험의 체제가 변화할 때마다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 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구자윤, 2014; 김선희, 2000; 김수업, 1996; 박영민, 2014; 배재성, 2014; 윤여탁, 2000; 이남호, 2006; 이성영, 2009; 임천택, 2008; 최미숙, 2008; 허일형, 2002), 임용시험에 출제된 문항에 대한 분석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중신, 2004; 김덕남, 2006; 박소영·민병욱, 2009; 유영복, 2014; 김민성, 2016; 박정은, 2016). 이를 연구 중에는 교사 양성 및 임용 체제에 대한 검토와 문항 분석을 겸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이다. 근래에는 외국의 교사 임용 실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으며(양성관, 2006; 조동섭, 2012; 서지영, 2015; 이인화·카와노유카, 2015), 국어교사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기초 논의로서 국어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교사 양성 및 임용 체제가 문제적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자장(磁場) 아래, 이 글은 중등 국어 교사 임용 체제의 문제점을 정책적·실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교사 양성 및 선발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국어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교사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둘째, 2014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출제 시스템, 출제 영역, 배점, 문항 형식 및 내용, 채점 시스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현행 임용시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논의로서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안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실질적인 개선과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와 교육공동체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 II. 중등 교사 임용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정적인 교사 수급 정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교사 양성 및 임용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임용 시험 경쟁률이다.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하면 경쟁률이 높을수록 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임용시험이 사범대학 등의 교육 내용과 수업 장면에 미치는 역류 현상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교사 양성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임용시험 경쟁률의 고공 행진은 출산율 저하

---

2) 임용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중등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평가가 교육과정에

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인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사에 대한 수요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면 교사의 수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2000년 이후 초중등학교의 교사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1〉 초중등학교 학생수·학급수·교원수 추이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2000	학생수(명)	4,019,991	1,860,539
	교사1인당학생수(명)	28.7	20.1
	학급당 학생수(명)	35.8	38.0
	학급수(개)	112,437	48,946
	교원수(명)	140,000	92,589
2005	학생수(명)	4,022,801	2,010,704
	교사1인당학생수(명)	25.1	19.4
	학급당 학생수(명)	31.8	35.3
	학급수(개)	126,326	56,968
	교원수(명)	160,143	103,835
2010	학생수(명)	3,299,094	1,974,798
	교사1인당학생수(명)	18.7	18.2
	학급당 학생수(명)	26.6	33.8
	학급수(개)	123,933	58,386
	교원수(명)	176,754	108,781
2015	학생수(명)	2,714,610	1,585,951
	교사1인당학생수(명)	14.9	14.3
	학급당 학생수(명)	22.6	28.9
	학급수(개)	120,063	54,855
	교원수(명)	182,658	111,247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박영민은 역류현상(wash back effect)이라 부르면서 국어과 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박영민, 2014: 12). 물론 교수·학습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이전의 교수·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시험의 방향에 따라 교실의 수업 장면이 바뀌는 역설적인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윤여탁, 2000: 149).

〈표 1〉은 2000년 이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를 5년 주기로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2000년에 중학교 1,860,539명, 고등학교 2,071,468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중학교 1,585,951명, 고등학교 1,788,266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이 기간에 무려 30만여 명의 학생이 줄어든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교사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교사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급수가 증가했거나, 학생수의 감소폭에 비해 학급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급수가 늘면서 교사 수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과로 그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표 2〉와 같이 2000년 이후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사 수는, 근래 중학교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표 2〉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수 추이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2000		12,659	12,055	국립고 94 / 공립고 3,917 / 사립고 5,014
2005	28,838 (603)	14,325(392)	14,513(211)	일반계고 11,694(165) 실업계고 2,819(46)
2010	30,652(1,241)	14,520(787)	16,132(454)	일반계고 13,271(373) 전문계고 2,861(81)
2016	29,949(1,396)	13,154(823)	16,795(573)	일반고 13,165(467) 특수목적고 602(10) 특성화고 1,489(47) 자율고 1,539(49)

\*( )는 휴직 교사 수

3) 2016년 총 학생수는 중학교 1,457,490명, 고등학교 1,752,457명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중학교는 약 10만 명, 고등학교는 약 3만 명이 더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년이라는 교육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그 감소폭이 훨씬 크다.

이처럼 학생수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가 줄지 않은 것은 일면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교사 수급의 문제가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소를 통해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학급수를 늘리거나 유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줄임으로써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교사 수요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주지하다시피 교사 수요에 비해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국어과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004학년도 시험에서 전국 평균 10:1을 돌파한 후 2018학년도에는 25:1을 넘은 상황이다.<sup>5)</sup> 중등 임용시험의 과도한 경쟁률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비정상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교사 수급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교원 수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간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자는 주장, 교사 인력 수급 계획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교사 정원에 맞게 사범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다소 급진적인 방안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KBS, 2017. 8. 14.).<sup>6)</sup>

- 
- 4) 모든 교과목의 교사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다. 제2외국어나 예체능, 전문계 교과의 경우 교사의 수요가 적어 임용 예정 인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에는 공통사회 임용 정원이 0명이 되는 바람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예비교사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일명 '노량진녀 1인 시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교사 임용 정원 사전 예고제가 실시되는 계기로 작용했다(YTN 2017. 10. 19.).
  - 5) 2018학년도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전국 채용 인원은 324명이다(일반 324명, 장애 25명, 지역 13명). 2017년 8월에 있었던 사전 예고에서는 채용 예상 인원이 256명이었으나 10월의 최종 공고에서 337명(장애 25명 별도)으로 증가하였다. 2018학년도 중등 국어 임용 시험의 지원자 수는 8,123명으로서 경쟁률은 25.07:1이다.
  - 6) 이 외에도 교사의 정년을 단축하여 신규 임용을 위한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추진되어 왔거나 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sup>7)</sup>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당분간 교사 수급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sup>8)</sup>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교사채용정원에 맞게 줄이는 일 또한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나마 추진되어 왔다. 또한 근래 몇몇 교육청에서 제안한 바 있는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그 효용성이 의심되는 정황<sup>9)</sup>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세간에서 제시하는 방안들 중 남는 것은 ‘교사 수급 계획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방향성뿐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교사 수급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교사 수급의 문제는 ‘교사의 선발과 임용’이라는 단일한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여건과 맞물려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

어 주목된다.(뉴스천지, 2017. 6.6.)

- 7)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21명에 근접해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OECD 평균치(23명)에 비해 9명이 많은 32명으로 보고되었다(OECD 학급당 학생수(2014)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py?itemCode=03&upperCd1=030205&menuId=m\\_02\\_03\\_01](https://kess.kedi.re.kr/kessTheme/zippy?itemCode=03&upperCd1=030205&menuId=m_02_03_01)).
- 8)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 중등 임용시험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기는 하나,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적고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어서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1교실2교사제와 같은 파격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조교사가 있는 고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성취 수준이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에 비해 ‘우수학력’(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해) 학생 비율은 낮고, ‘기초학력 미달’(교육과정의 20% 미만을 이해) 학생 비율은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17.08.14.).

기관이나 특정 개인의 일방적인 주도로 성급하게 해결하려 해서는 역효과만 날 우려가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가 아래에 제기하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을 갖춘 구체적 방안이라기보다 향후 국어교육계에서 논의하기를 바라는 사항이라 하겠다.

우선, 교사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학생수의 변동 상황과 재직 교사의 정년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사 수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근래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어 학교급별·교과별로 장기적인 교사 수요를 예측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sup>10)</sup> 장기간의 교사 수요 예측 정보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려는 교사 지망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교사 수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사회적·교육적 돌발 변수를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학령인구 추이, 의무교육 진학률 및 각급학교 진학률 동태, 학교급별 학급수, 학급별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연도별 퇴직교사 및 휴직교사 수 추이 등의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연도별 최소 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는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이미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낮은 기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sup>11)</sup> 현재의 임용절벽 상황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의 구조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평가들은 본질적으로 대학교육의 자율권을 훼손하여 교육의

10) 관련 연구로 차양은 외(2003), 김병주·오영수(200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현재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 교직희망자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996년 제 3차 '교육개혁방안(1996. 8. 20)'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의되면서 도입되었다.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관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 <https://necte.kedi.re.kr>)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교과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교원양성기관의 통합이나 재편과 같이 교원 양성 및 선발 체제의 근간을 개혁하는 방안이 협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교원 양성기관들을 그 체제는 유지하면서 규모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교대, 사대, 교육대학원과 같은 교원양성기관의 통폐합, 교과별 교사 양성의 표준 교육 과정 및 심화 교육과정 개발,<sup>12)</sup> 주요 교과와 전문계 교과의 교원양성체제 이원화, 교사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의 관련성 제고 등 교사양성 및 선발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양성기관의 통합과 재편 과정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배출 규모를 장기적인 교사 수급 예상 인원에 맞추어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원양성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중등 임용시험 경쟁의 과열화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었고,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의 사법대 지역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부각되면서 교육부 주도로 개혁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종합방안 시안’에 담긴 ‘방안’이란 것이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소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2004.4.)’을 통해 급조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국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려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의 기초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몇 차례의 회의와 의

12) 국어과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표준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영민(2014)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국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의 균질화라는 측면에서 국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표준화는 국어과의 내용영역별, 교육단계별 전공심화과정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표준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공심화과정에 대해서도 임용시험에서 평가내용 및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견 수렴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찬동하는 교원양성기관은 거의 없었다. 결국 2004년의 ‘종합방안’ 사태는 교원양성기관들 간의 이해관계와 잠재적 갈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필자는 임용대란 문제가 또다시 표면화된 2017년 현재가 교원양성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개편이 지닌 위험성도 존재한다. 중등교원양성기관과 초등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초등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다시피 이미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에 접근한 초등학교의 교사임용 또한 곧 중등과 같은 ‘임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충격 요법이 없는 한 초등 교사 임용 체제 문제는 중등보다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양성기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다. 물론 이 개혁을 2004년의 ‘종합방안’처럼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먼저 학교급별, 교과별로 현재의 교사양성과정과 교원선발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초중고 교육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그 대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가수준의 중장기적인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초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사양성 및 선발 체제에 대한 교육계의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혁의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실천적·학문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인’ 개혁이어야 할 것이다.

### III.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서 논의한 장기적·거시적인 개혁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현행 임용시험 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기서는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출제·시행·채점 체제<sup>13)</sup>가 갖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sup>14)</sup>

#### 1. 시험 체제의 문제: 1·2차 비중 조정 및 교육학 시험의 자격화

현행 중등 국어과 임용시험은 201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 체제를 따르고 있다. 2014학년도 임용시험의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문항 유형별 문항 수, 배점 등은 매년 조금씩 변화해 왔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시험은 100점 만점의 지필시험으로 교육학 논술형 20점과 전공(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8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은 전공A와 전공B로 다시 나뉘는데 국어과의 경우 문항의 형식과 배점만 다르다. 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평가로 이루어지며, 총 배점은 100점 만점이다. 1차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배점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1차에서 시도별 채용 인원의 1.5배수(강원도는 2배수)를 가지고 이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시험이 치러진다. 1차와 2차의 합산 점수로 최종 합

13) 3장의 논의는 1차시험을 중심으로 한다. 2차시험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배점도 달라지므로 균질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다.

14) 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임용시험의 운영 체제에 대한 기술 내용 중 일부가 기밀사항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술지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와 예시를 대폭 삭제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3〉 중등임용시험의 시험 과목, 시간, 문항 유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차 시험 (100점)

교시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출제 분야	교육학	교과교육학(25~35%) 교과내용학(65~75%)				
시험 시간	60분 (09:00~10:00)	90분 (10:40~12:10)		90분 (12:50~14:20)		
문항 유형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수	1문항	8문항	6문항	5문항	2문항	1문항
문항당 배점	20점	2점	4점	4점	5점	10점
교시별 배점	20점	40점		40점		

2) 2차 시험 (100점)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비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문항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 2차 시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격자가 가려지게 된다.

현행 임용시험은 2013학년도 이전 임용시험의 3단계 전형 체제가 지닌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2단계 체제로 간소화한 것이다.<sup>15)</sup> 그런데 이전의 3 단계 체제에서는 1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3차 점수만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sup>16)</sup>이던 것이 현행 2단계 체제에서는 1·2차 시험

15) 이전 2013학년도까지의 임용시험에서는 교직과정 운영 부실, 교직소양 및 인성에 대한 무관심, 시험의 타당성 저하, 수험생 부담, 장기간의 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학사 운영 차질 등이 문제시되었다.

16) 2012학년도 시험부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 합산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정했다.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수업능력과 교직적성을 평가하는 2차 시험 결과의 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현행 2차시험의 경우 채점 과정에서 1차시험에 비해 수험생들 간의 편차를 크게 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차시험의 결과가 최종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업전문성, 교직적성과 인성, 국어교육의 총체적 설계와 실행 능력을 점차 중시해 가는 교육계의 현행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결국 2차시험의 실질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2차 시험의 합산 방식을 1·2차 단계통과식으로 다시 전환하여 2차 시험의 배점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수업설계 및 실연 능력 평가를 주로 하는 2차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출제 영역이나 내용 요소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공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1차시험의 경우에는 국어과의 모든 내용영역에 대하여 복수의 문항이 출제되지만 2차시험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중 하나의 영역에 대해 한 문항만 출제되고 있다. 물론 1차에 비하면 2차시험의 내용 난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출제 범위 및 평가 내용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는 1차시험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차시험의 취지가 전공지식이 아닌 수업설계 및 실연 능력 평가에 있다면, 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2차시험의 출제 분야나 내용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요컨대 현행 임용시험 체제의 1·2차 점수 합산 방식은 1차시험 합격자들이 2차시험에서 원점부터 다시 경쟁하는 단계통과식 선발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차시험에서 평가하는 전공 지식보다 2차시험에서 평가하는 수업 능력, 교직 적성 등이 국어교사에게 더 요구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는 점, 시도별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1차시험을

---

2011학년도까지는 1~3차 점수 합산 방식을 취하였다.

통과하는 예비교사들 간의 전공지식 수준 차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2차 채점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1·2차 합산식 선발 방식을 단계통과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서 1차시험의 교육학 논술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밝힌다. 현행 임용시험에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1차 전공 시험이지만, 교육학 논술 또한 예비교사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교사라면 교육학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임용시험에서 평가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교육학 소양을 꼭 1차시험에서 전공과 함께 지필시험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교육학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학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임용시험에서 전공과 교육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시켜서 전공 평가의 수준과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임용시험에서 일반 교육학이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도 강조될 수 있다. 다만, 교육학 시험을 자격화할 경우 현행의 논술형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험의 형식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다.

## 2. 출제 과정상의 문제: 충분한 출제위원 확보

현행 중등 국어 임용 1차시험 출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은 다양한 세부 전공 영역별로 충분한 출제위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임용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면서도 오류 없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출제 영역별로 우수한 출제위원을 확보하여 출제진을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어과 임용시험(1차)의 전공 문항을 살펴보면,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의사소통(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

이 각각 30%, 30%, 40%의 배점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이 세 영역을 다시 세분하면,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문법 영역은 국어사·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화용론, 문법교육론으로, 문학 영역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약간의 배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등 국어 1차시험은 <표 4>와 같이 세부 전공 배점 비율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출제해 왔다.

<표 4> 국어과 임용시험(1차) 세부 전공별 문항 배분

국어과 전공 영역		연도별 배점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영역별 배점
의사소통 영역 (30%)	듣기·말하기	6	10		26
	읽기	10	6		
	쓰기	10	10		
문법 영역 (30%)	국어사·음운론	8	11		21
	형태론·통사론	8	6		
	어휘론, 화용론, 문법교육론	5	4		
문학 영역 (40%)	현대시	12	9		33
	현대산문	9	10		
	고전시가	6	7		
	고전산문	6	7		

국어과 1차 시험이 <표 4>와 같은 전공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제위원만 해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세부전공별로 보면, 의사소통 영역 전공자 3명 이상, 문법 영역 전공자 3명 이상, 문학 영역 전공자 4명 이상의 출제위원이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모든 내용 영역에서 안정적인 출제가 가능하다.

국어과는 원래 다른 교과에 비해 출제가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다가, 특히 임용시험은 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경쟁시험인기에, 전공 영역별로 출

제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문항을 출제하기가 어렵다. 중등학교의 교과교육 전문가를 선별하는 임용시험의 출제진 구성에 있어서 교원자격증상의 표시과목으로 분류되는 교과들 간의 행정적인 편의성이나 형평성만 고려해서는 곤란하다.<sup>17)</sup> 국어과를 포함하여 응시자 수가 많고 출제 부담이 큰 교과에 대해서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전공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출제위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3. 문항 형식의 문제 – 기입형 문항의 지양

현행 중등 임용 1차시험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입형이라는 문항의 형식이다. 현행 1차시험 문항은 기입형(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sup>18)</sup> 이 중 단어나 어구를 정답으로 하는 기입형의 경우 국어과 임용시험의 문항 형식으로 부적절하다.

기입형이 지난 가장 큰 문제는 국어과 임용시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출제하기 어려운 문항 형식이라는 것이다. 기입형 문항의 경우 국어교육의 주요 개념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언어 자료

- 
- 17) 중등 임용시험의 과목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주요 교과에 속하는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 사회과나 과학과에 비해 세부 전공별로 충분한 출제진을 확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 각 교과 단위로 임용시험이 시행되는 데 비해, 사회과는 일반사회, 지리, 역사의 3과목으로, 과학과의 경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의 4과목으로 나뉘어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 18) 기입형 문항은 완성형과 단답형으로 구분된다. 완성형은 질문을 위한 문장의 처음, 중간 또는 끝에 여백을 두어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 형식이며, 단답형은 질문에 대해 짧은 단어, 구, 절 혹은 수, 기호 등 제한된 형태로 답하는 문항 형식이다. 서술형은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장 단위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 형식이다. 논술형은 논리적 기술 능력, 분석 능력, 비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고차적·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 형식으로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성 방법’에 맞게 답안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확대 서술형’이라 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중등 임용시험(1차)의 경우, 2점 배점의 기입형 문항이 총 8개 출제되었고, 그 중 7개가 완성형 문항이었다.

를 구성하여 이 개념이 정답으로 수렴되도록 문항을 설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쉬워지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서 변별력이 손상될 수 있다. 문항의 부피나 출제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답이 너무 단순해질 수 있다는 점이 기입형의 맹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답을 수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국어과 문항에서 특정 정답으로의 수렴을 지향하는 기입형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문항 형식이다. 기입형은 학교 수업 상황에서의 형성평가나 개념적·사실적 지식을 주로 묻는 퀴즈에는 적절한 문항 형식이지만, 개념적 지식 그 자체보다 국어활동 맥락에서의 지식 활용 및 적용 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국어과 문항의 설계, 특히 예비국어교사의 전공지식 능력을 평가하는 임용시험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입형은 국어과 외에 모든 교과목의 중등 임용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항 형식이다.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실질적으로 기획·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에서 보면, 30개가 넘는 교과들 간의 균질성과 형평성, 출제 및 채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문항의 형식과 체제를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용시험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전문적인 전공 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치르는 선발경쟁시험인 만큼, 관리상의 효율성과 교과 간의 형평성보다 먼저 해당 교과의 교육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전공 이해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과 임용 시험의 경우 출제 난도는 높으면서 임용시험 문항으로서의 질적 수준은 보장하기 어려운 현재의 ‘기입형’은 폐기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타 과목과의 통일성과 시험 체제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기입형’을 당장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입형’이란 용어는 유지하더라도 국어과의 경우에는 단어나 어구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문장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문항의 출제를 지향하는 내부적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 4. 채점 체제의 문제

중등 임용시험은 선다형이 아닌 서답형 시험인 만큼 출제만큼이나 채점이 중요하다. 선발경쟁시험으로서 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채점의 정확성·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6〉 중등임용 1차시험 채점 체제(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점위원 워크숍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
가채점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 실시, 가채점 결과에 대해 채점위원들이 비교·협의하여 채점 기준의 일치도 제고, 채점위원 간 신뢰도 확보
채점기준의 수정·보완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채점위원 3인이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
채점위원 3인의 독립 채점 (본채점)*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하여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 후 평균 점수 산출

\*은 필자가 추가한 내용임.

현재 중등 임용 1차시험의 채점은 3인1조의 독립채점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채점자들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다. 채점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6〉 참고). 채점자들은 먼저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채점시스템, 문항, 채점기준을 숙지한 후 채점조별로 배정된 답안을 가채점하게 된다. 가채점 결과를 3명의 채점자가 서로 비교 검토하여 채점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채점이 어려운 특이답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답안에 대하여 채점 방향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이때 채점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3인의 채점자들이 문항과 채점기준을 완벽히 숙지하고 본채점을 하기 위한 ‘영점’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채점 단계에서는 같은 채점조에 속한 3인의 채점자가 동일한 답안을 배정받아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같은 시·도의 답안은 같은 채점조가 채점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점 도중 발생하는 특이사

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행 임용시험 문항은 답안의 분량이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험생들의 답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채점 진행 도중 개별 채점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답안이 발생할 때마다 채점단 내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모든 채점이 일단락되면 채점 결과를 재검토하여 점수를 확정하게 된다.

1차시험 답안의 채점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상황 중 하나는 모든 문항의 채점 난이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개별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대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답과 오답을 함께 쓴 답안, 정답을 썼으나 팔호 등을 사용하여 오답을 추가로 기재한 답안, 정오답의 경계가 불분명한 답안, 정오답의 경계가 불분명한 내용을 정답과 함께 기재한 답안 등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필자가 보기에 개별 문항의 내용이나 채점난이도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답과 오답을 함께 쓴 경우 오답 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면 대부분의 문항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채점 난도가 높은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특히 문항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학술적 견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면 답안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보안채점 상황에서 비전공자인 채점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섭렵하여 배정받은 답안을 모두 정확하게 채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채점기준상의 정답 요소를 포함하면 정답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요소 채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채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전공자들을 채점자로 섭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채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능한 채점자’를 추천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채점 난도가 높은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채점의 효율성과 공정성보다 정확성이

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채점의 난항이 예상되는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내용 영역 전공자를 별도 섭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이 글에서는 현행 중등 교사 임용 제도와 임용시험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중등 국어교사 양성 및 임용 제도가 세 가지 구조적 문제 - 교원자격증 취득자 배출이 교사 수요를 넘어서는 문제,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임용시험 평가 내용 간의 정합성 부족 문제, 임용시험 체제의 불완정성 문제 - 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 하에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임용시험 체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사 수요 계획을 세워 이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과 교원양성기관의 근본적·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간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면서 국어교육의 실천적·학문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의 체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전형의 방식을 현행 1·2차 합산식에서 단계통과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출제를 위해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세부 전공 영역의 출제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문항 형식의 측면에서, 단어나 어구 수준의 정답을 요구하는 기입형은 국어과 임용시험의 문항 형식으로 부적절하므로 가능한 한 문장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

제해야 한다. 넷째, 채점 난도가 높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 관련 전공 채점자가 채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국어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합리적 임용 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어교육 실천의 초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 양성 및 선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개혁을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현재의 교사 임용시험 체제가 가진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융통성이 필요한 때이다.

\* 본 논문은 2017. 10. 31.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KBS 아침뉴스스타임(2017.08.14.), 「교사 임용축소, 고시생 - 비정규직교사 갈등으로?」, 검색일자 2017.8.17. 사이트주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2764&ref=A>
- YTN(2010. 10. 17.), 「교과부 움직인 '노량진녀'의 힘」, 검색일자 2017.10.20. 사이트주소:[http://www.ytn.co.kr/\\_ln/0103\\_201010190535259154](http://www.ytn.co.kr/_ln/0103_201010190535259154)
- 교육부(2004),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2004. 10. 29.)」. 서울: 교육부.
- 구자윤(2014), 「국어교사 전문성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99, 43-69,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덕남(2006), 「중등교원을 위한 국어과 임용고사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성(2016), 「중등학교 국어과 임용고사 쓰기 영역 기출 문항 분석」, 『교육이론과실천』 25, 17-47,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병주·오영수(2002), 「교원의 수요와 공급 예측치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0(4), 55-80,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선희(2000), 「한국과 중국의 교원정책 및 대학생의 교직관 비교연구: 초·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업(1996), 「교원전형제도개선(안)에 따른 국어과의 전형방안 모색」, 『중등교육연구』 8, 45-52,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 김중신(2004), 「중등학교 임용시험(국어과)의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20, 31-58, 국어교육학회.
- 뉴스천지(2017.6.6), 「[최선생의 교단일기] 교사의 정년은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돼야 한다 - I」, 검색일자 2017.10.30. 사이트주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721>
- 박소영·민병욱(2009), 「중등 국어교사 임용시험의 문학 영역 비중 연구」, 『배달말』 44, 255-289,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 박영민(2014), 「국어과 중등 임용시험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 방안」, 『청립어문교육』 49, 7-29, 청립어문교육학회.
- 박정은(2016), 「국어과 교사 선발 문항과 학생 선발 문항 연구: 문법 문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성(2014), 「신규임용교사들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시 국어과 신규임용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9 (2), 265-293, 국어교육학회.
- 서지영(2015), 『교사양성 및 임용 체제 국제 비교(연구자료 ORM 2015-50-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세계일보(2017.8.14.), 「[단독] 수업 보조교사 있는 고교…되레 학업성취도 낮았다」, 검색일자 2017.10.30. 사이트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00399>.

- 양성관(2006), 「미국의 교사양성과정」, 『비교교육연구』 16(2), 77-103, 한국비교교육학회.
- 유영복(2014), 「국어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문항 연구: 1997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문법 문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2000), 「국어 교사 임용 시험의 실태와 비판: 중등학교 임용 시험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2, 135-153,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남호(2006),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1(9), 187-227, 한국어교육학회.
- 이성영(2009), 「국어교사의 양성과 선발」, 『국어교육학연구』 35, 387-414, 국어교육학회.
- 이인화·카와노유카(2015), 「한국과 일본의 자국어 교사 임용 시험 비교 연구: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9, 179-212, 국어교육학회.
- 임천택(2008), 「초등국어 임용고사의 실태와 개선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 315-33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조동섭(2012), 「미국의 교사 신규 임용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1-20, 한국교원교육학회.
- 차양은·서지영·이병렬(2003), 「중등교원 수요와 공급의 미래예측」, 『교육행정학연구』 21, 297-316, 한국교육행정학회.
- 최미숙(2008),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검토와 방향: 새로운 임용시험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1, 35-67, 국어교육학회.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 홈페이지, 「평가소개 - 목적 및 배경」, 검색일자 2017.8.16.  
사이트주소: <https://necte.kedi.re.kr/necteview.do?view=content/webhome/target>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 국가고사 -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색일자 2017. 10. 28. 사이트주소: <http://www.kice.re.kr/sub/info.do?m=010602&s=kice#tablink>
- 허일형(2002), 「국어과 교사 임용고시의 방법론 모색: 국어과 교사 임용고시의 방법론 모색」, 『나랏말쌈』 17, 147-149,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 중등 국어 교사 임용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상일

이 글에서는 현행 중등 국어교사 임용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사 수요 계획을 세워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근본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 단, 이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어교육의 실천적·학문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중등 국어 임용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전형의 방식을 현행 1·2차 합산식에서 단계통과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출제를 위해 세부 전공 영역의 출제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현행 임용시험의 기입형은 문장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해야 한다. 넷째, 채점 난도가 높은 일부 문항은 해당 문항의 전공 채점자가 채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국어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체제 개혁을 해 나가면서 현행 임용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중등 국어교사 임용 체제, 교사 수급, 교사양성기관의 개혁, 단계통과식 선발 방식, 출제 위원, 기입형, 전공 채점자

## ABSTRACT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Candidates' Tests

Lee Sangil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Candidates' Tests, and propose improvement methods.

As a fundamental reform plan, we propose establishing a teacher demand pla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ublicizing it in a socially informed manner and reforming the teacher-training institute entirely. However, these reforms should not only ensure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be "educational" reforms that produce practical and academic growt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rt-term improvement suggests methods regarding problems concerning the current middle-school Korean language recruitment test system.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weighting of each sample point needs to be adjusted. The proportion of the second test should be increased by adopting pass-through. Second, all members in the specialization field needs to be secured for stable entry. Third, the entry type of the current employment test is unsuitable for the item type that selects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herefore, it should be abolished or replaced with another item type. Fourth, for some items with a high score,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score by the foremost scorer in question.

**KEYWORDS**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Candidates' Tests, Stable Teacher Supply and Demand, Reorganiza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Pass-through, Members in the Specialization Field, The Entry Type, Major Foremost Scorer